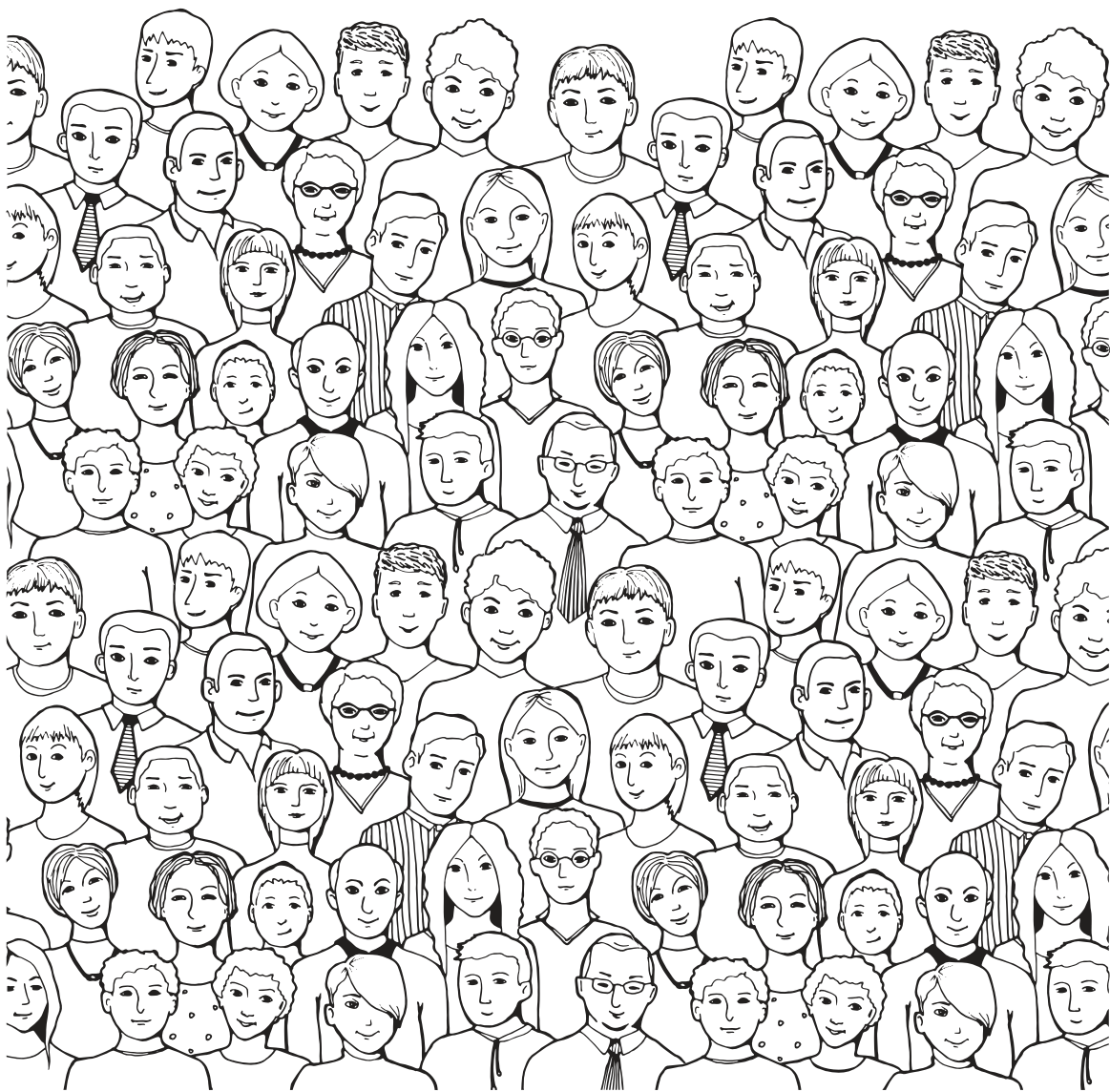




청림에 '다음'은 없습니다

2017 청림 사연 · 수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CONTENTS

공모전 소개 및 개요	04
심사평	06

대상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08
---------------------------	----

최우수상

[공직부문] '다음'은 없습니다.	20
[일반부문] 양심 방역	31

우수상

[공직부문] 1등 한 날	40
[공직부문]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	51
[일반부문] 전하지 못한 신도증	60
[일반부문]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청렴!	71

장려상

[공직부문] 어머니의 작은 골목	81
[공직부문] 진정한 보배!	90
[공직부문] 새벽 2시에 올린 전화	101
[일반부문] 청렴한 물방울 하나가	108

장려상

[일반부문] 어느 택시기사의 불면증	119
[일반부문] 참 좋은 나라는 청렴으로부터	127

입선

[공직부문]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	136
[공직부문] 좁은 길	146
[공직부문] 좀 태워주지 그래?	156
[공직부문] 대한민국은 변화 중	167
[공직부문] 예민함의 쓸모름	175
[일반부문] 수많은 선택지 속 단 하나의 이정표	183
[일반부문] 버스기사의 양심	194
[일반부문] 6살, 정직은 알아요.	203
[일반부문] 신문지 꽃다발	213
[일반부문] 새 달력	222

독후감 수상작

[최우수상] 바른 길을 걷는 건강한 대한민국	232
[우 수 상] 명령 불복종과 청렴	240
[우 수 상] 작은 어둠들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모여	248
[우 수 상] 숲	256

2017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 접어든 이번 공모전에서는「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계기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과 관련한 사연>과 <「부정청탁금지법」시행 이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국민들의 다양한 청렴 사연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를 비롯하여 10대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은퇴한 분들까지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청렴 사연들이 모였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총 23편의 수상작을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진솔하고 감동적인 23편의 이야기를 소재로 2차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총 19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최우수와 우수작품 등 4편을 동시에 수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렴콘텐츠(UCC, 웹툰, 강의경연)를 공모하였으며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작품집에 수록된 사연들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청렴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7 반부패·청림 콘텐츠 공모전 개요

부문	공모기간	주제	수상	비고
사연수기	5. 30. ~ 7. 24.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청림 및 양심과 관련한 사연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	총 23편	작품집 수록
독후감	8. 21. ~ 11. 14.	• 2017년 사연수기 공모전 수상작품 23편에 대한 감상 내용	총 23편	
UCC / 웹툰	8. 21. ~ 11. 14.	• 2015년~2017년 사연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 일상에서 경험한 청림 관련 이야기를 소재로 콘텐츠 제작 • 판소리 5마당을 기반으로 청림의 의미를 가미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총 22편 (각 11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강의경연	8. 16. ~ 9. 29.	• 반부패·청림관련 법령, 제도 및 소양 등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내용	총 11명	

심사평_ 여태천(교수)

청렴이란 말이 반드시 공직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정한 상황을 목도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상황의 중심에 서있을 수도 있다. 물론 공직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지위나 직업, 혹은 신분의 고하에 따라 청렴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렴에 있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없다. 모두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심을 거친 응모작들은 하나같이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때로 성의라고 생각되는 오랜 관행이 우리 사회를 흔탁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작품들이 많았다. 심사는 반부패와 청렴이란 주제를 잘 반영했는가보다는 얼마나 참신하게 그 주제를 형상화했는가, 그리고 다른 콘텐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응모작을 읽으면서 내내 우리 사회의 흔탁하고 부정한 모습들로 마음 한곳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응모자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결단과 아름다운 행동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부정한 청탁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는 어둠의 손길로부터 그 한 사람만을 지켜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행동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투명해지고 공동체는 믿을 수 있게 된다. 응모한 이들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례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라며, 수상자와 응모자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심사평_ 정승재(교수)

각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실감 있게 작성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글쓰기 솜씨가 상당히 평준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심사였다. 아마도 각종 수기공모 수필공모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글쓰기 공모전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인정에 매달리는 행정, 그리고 특정 계급과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 운영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각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인문학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공직분야에서 〈반부패 청련 사연 수기 공모전〉에 많은 작품이 응모되었다는 것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이 갑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과거의 갑질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갑질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할 때에 일어나는 사소한 오해,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공직부문의 〈어머니의 작은 골목〉은 공무원을 자식으로 둔 어머니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봉사를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청렴의무와 잘 엮은 작품이었다.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은 공무원에게 한 친구의 청탁과 과거 어렸을 때 청탁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 곰돌이인형 눈알을 붙이는 알바를 한 내용을 잘 섞어 우리에게 몽글한 마음을 느끼게 한 잘 엮은 작품이었다.

일반부문의 〈거룩한밤 고요한 밤〉은 젊은 디자이너가 직장에서 겪은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수기로서 비록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작품이었다.





대상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1981년도 전방지역 사단 예하연대에서 근무하다가, 사단으로 전입해 온 지 1개월 정도 되던 대위(군수장교, 본부중대장 겸임)로 근무할 당시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때쯤, 보급창고와 취사장(식당)지역을 순찰하다가 대대장님 숙소근무병(당번병, 지금은 이와 같은 보직이 없음)이 쇼핑백 같은 비닐봉지에 내용물을 잔뜩 담아 취사장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김 일병? 그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는

“예, 대대장님 관사에 갖고 가는 부식들입니다.”

라며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였다.



대충 확인을 해보니, 생닭 2마리, 마늘, 양파, 고춧가루, 생닭을 튀긴 통닭 1/2마리 등이 담겨있었다. (사실 대대장님의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계시고, 대대장님만 혼자서 관사에서 생활하셨다).

그리하여 당번병에게 취사장으로 함께 가자고 하면서 보급 담당 부사관(당시 하사관) 역시 취사장으로 오도록 하여,

“잘 들어라. 앞으로 대대장님이 드실 부식은 일반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대장님께 당번병이 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신 구매를 하도록 하라. 당번병은 대대장님께 이 내용을 내가 지시했었다고 말씀드리고, 보급선임하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대대장님 관사뿐 아니라 어느 간부라도 사적으로 부대의 부식 등을 외부로 불법 반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라고 강하게 지시를 하였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아주 애매하고 직속상관계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춰졌겠으나, (지금은 거의 일소되었겠지만) 그 당시 극히 일부 간부들이 취사장의 부식들을 거리낌 없이 반출하는 행위와 그것을 묵인하는 군부대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직책이 아니었기에 방관을 하면서, 그 일에 미처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반성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개근상을 받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남을 잘못되게 한다면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성격이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바르게 생활하는 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묵과할 수는 없었다.

이와 더불어, 나로서는 병사들이 정량으로 먹어야 할 급식을 극히 일부 부대 지휘관 등 부대 간부들이 암묵적으로 별도로 챙겨가는 것이 평소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였기에 이런저런 망설임 없이 현장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부대 간부들은 하나같이 제가(군수장교)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려 섞인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을 내가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 드려야 하나, 어찌나?’하면서 내심 갈등은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오히려 대대장님께서 민망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아신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보고를 생략했다.

이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대장께 참모장교인 제가 반기를 들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러한 사례가 자연스럽게 만연되어 있으며 부패라는 의식을 전혀 갖



지 않는 군대문화를, 우리 부대에서부터라도 변화를 갖게 하는데 미력하나마 계기를 만들겠다는 순진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이슈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참모, 중대장들이 참여하는 일일회의가 대대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일상적인 조회 형식이었기에 회의는 특별한 것 없이 잘 마쳤는데, 대대장께서

“군수장교는 잠깐 보자.”

며 통명스럽게 말씀하셨다. 예견했었던 것이기에 담담하게 대대장님과 마주하게 되었다.

대대장께서는 곧바로

“군수장교는 대대장을 도울 생각이 없는 놈인데다, 보직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부대로 떠나가라.”

고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인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꼬리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잘못된 상황 대처라고 생각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게다가 대대장께서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거나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격하게 나를 질책하시니, 이는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대대장님. 왜 제가 이 부대를 떠나야 합니까? 대대장님이 먼저 떠나셔야죠? 잘못된 사람은 대대장님이시니까요.”

라고 답변하였다. 하급자이고 참모 장교인 내가 직속상관의 면전에서 이러한 발언을 당돌하게 한 것에 대해 나 자신도 매우 놀랐고, ‘이 발언이 법적으로 상관 모욕죄가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폭탄을 터뜨려 버린 것이다.

대대장께서는 엄청 당황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갔던 참모, 중대장, 주임원사 등은 대대장실 부속실에서 대기하면서, 문틈으로 새어나온 얘기들과 분위기를 통해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약 일주일 정도를 대대장님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의 시간으로 보냈다. 그러던 중, 부대 내에서 불행하게도 안



전사고로 인한 병사 1 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모두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대대장으로부터 휘하 간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장례절차, 유족들과의 관계, 부대 사기 유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자가 없는 상태였으며, 내가 직무상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이라면 이상하지만, 내가 이곳으로 전입 해오기 전 연대급 예비부대에서 10여건 정도의 사건·사례(사망 사고 등)들을 접하고 이를 수습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하였기에, 전혀 당황치 않고 대대장님께

“대대장님께서 얼마동안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제가 주도적으로 다른 간부들과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 일사분란하게 장례 절차까지 완벽하게 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을 종결하고 마무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대원들에게 대대장께서 훈시를 하는 시간에, 앞친 데 겹친 격으로, 동료 중대장의 어린 아들이 관사지역에서 놀다가 부식들을 이동판매하는 민간화물차량에 치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사고소식을 접하였다. 이 또한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내 일처럼 모든 것을 순조롭게 처리하였고 이후에 부대를 정상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하기까지 2 주일여 동안 분주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사고 수습을 마무리 한 다음날, 이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지켜보신 대대장께서는 내게 다가와서 다정스럽게

“군수장교, 자네 오늘 나하고 사단회관에서 같이 목욕을 하고 식사도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대대장께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 목욕을 하고 식사까지 하자고 하시는지가 못내 궁금했었다. 목욕탕에서 어느 정도 각자의 목욕을 마친 상태에서, 온탕으로 들어가자 대대장께서는 갑자기 눈시울을 적시며 저의 두 손을 잡고서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수장교,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목숨까지 잃게 된 이번 안전사고 건을 확인하고서 아주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면목이 없다. 중대장 아들 건에 대해서도 자네가 정말 지혜롭게 수습을 잘해줘서 정말 수고 많았고,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특별히 진심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참 침묵을 하시다가) 지난번 식당의 부식 반출과 관련해서 내가 자네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자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솔선토록 하겠다. 자네가 나에게 대대장이 먼저 나가시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많은 반성을 하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느껴왔는데, 내 생각이 짧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었으며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자네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 더욱 부끄럽게 생각한다.”

는 요지로 떨리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에

“제가 너무 당돌하게 버릇없이 말씀을 드려서 대대장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죄송합니다. 대대장님께 반감을 가진 것은 추후도 없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부대 업무를 더욱 열심히 잘해서 대대장님께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드렸다.

식사를 하면서도 목욕탕에서의 말씀을 되풀이 하면서

“군수장교의 마음과 능력 등 여러 부분들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대대장이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 미안하다.”

고 하시면서 쿨하게 정리하셨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나는 드러내 놓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다행스럽고 마음이 떨
듯이 기뻐으며, 대대장께서 부대 부식을 관사로 갖고 간 행위가 엄청난 잘
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일이 있는 후 다음날 아침 조회 시에, 전 간부들에게

“부대부식을 대대장도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했었는
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그
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로 인해 부대 부식 반출 사건이 노출되어,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부대
의 분위기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대대장님의 말씀 덕에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되었고, 부대 분위기를 우려한 간부들에게 나의 진의를
알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이 건으로 인해
더 밝고 활기찬 부대가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수 년 전에 40여 년만에 시골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었다. 2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거의 낮이 설은 여자 동창이 나를 향해서

“너 제국이 맞지? 너, 잘 만났다. 네가 부반장 하던 4학년 때,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옥수수 죽을 내가 한 그릇을 먹고 나서도 배가 고파 두 번째 또다시 먹으려고 줄을 섰다가 너에게 발각되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너 기억하니?”

라고 뜬금없이 공격 아닌 공격을 해서,

“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하자, 여러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 제국이는 바른생활이었지?”

라고 하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나는 그러한 의식들을 생활철학으로 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 ♡





최우수상 • 공직부문



‘다음’은 없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다음’은 없습니다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오전 8시, 잠시 감았던 눈이 시계 알람처럼 떠집니다. 이제 달릴 시간입니다. 전철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경주하듯 승강장을 벗어납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다시 달립니다. 3층 복도에 세워진 거울 앞에서 숨을 돌리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전쟁을 마치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활짝 열어요! 청렴한 세상」

사무실 문에 붙은 표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청렴한 세상으로 출근합니다.

저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일합니다. 이곳의 하루는 현장출장, 보고서 작성, 범죄자 면담, 범죄 예방 강의 등으로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보호관찰관은 하루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해서 도움을 주기도, 처벌하기도 하므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서는 가끔 “법무부는 받아도 문제없는 곳이잖아?”라든가 “거긴 아직도 그래?”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특별권력관계인 법무부직원과 특정대상자의 관계를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받아도 문제없는 곳은 없어.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라며 웃어넘기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운한 감이 남습니다.

지난해 11월 초의 일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하고 돌아와 황급히 행정지원과를 찾았습니다.

“서무계장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는데 우리는 준비 안 해요?”

“그건 법을 잘 지키면 되죠. 따로 준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가 본 초등학교에는 문마다 청탁금지법 시행 안내와 학부모들을 학교 내에 음료수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아, 그거 좋겠네요. 우리도 출입구마다 손잡이 옆에 청탁금지법 안내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사 내 모든 사무실 문 옆에는 청탁금지법 안내 스티커와 감사는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표어가 함께 붙어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이 소란스러워져서 어떤 일인지 궁금해 가보았습니다. 한 보호관찰대상자와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워서 아이스바 먹다가 담당관님하고 직원분들 생각나서 몇 개 더 사온 건데 뭐라고 하시면 서운합니다.”

“문 옆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붙여놓았는데 보셨나요?”

“봤습니다. 근데 저 조금 있으면 보호관찰 끝나잖아요. 청탁할 것도 없구요.”

“제가 법무부 직원이에요. 누구보다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죠. 인정하시죠?”

“법에도 융통성이 있잖아요. 안 드시면 버려야 하겠습니까?”



실랑이는 끝날 기미가 없었고 아이스바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습니다. 문득 17년 전 새내기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상철(가명)이는 치킨 가게의 배달용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절도는 주로 날렵하게 생긴 스포츠бай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의아했습니다.

“왜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훔쳤지?”

“멋있는 친구들은 다 오토바이를 타요. 너무 타고 싶었는데 살 돈은 없고요. 배달 오토바이는 키가 꽂혀있어서…….”

“모두 상철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어떨까? 그리고 그 치킨 가게 사장님의 마음은 어떨까?”

“죄송해요. 사장님께 가서 사과할게요.”

상철이는 오토바이를 훔친 가게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달 후 만난 상철이는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선생님, 저 오토바이 면허 땀어요. 그리고 저녁때 알바 할 곳도 구했어요.”

“면허를 취득했다고? 잘했다! 일하는 것은 부모님 허락 받았니?”

“네, 오토바이를 훔쳤던 가게에서 배달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 교통법규 정확히 지키고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상철이가 어느 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히죽거리는 상철이의 양손엔 커다란 비닐 봉지가 들려있었습니다.

“상철아, 배달할 걸 여기까지 들고 오면 어떻게 하니?”

“이거 선생님들 드시라고 제가 맛있게 튀겨왔어요.”

한눈에 봐도 네댓 마리 정도는 되어 보이는 많은 양의 치킨이었습니다.

“상철아, 여기 선생님들은 음료수도 받지 않아. 잘 모르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모두 돌려보낸단다. 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선생님, 이거 가져가지도 못해요. 다 버려야 해요. 이번만 그냥 드세요.”

“그래? 음…….”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가져가게 할 수도 그냥 받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배가 재미있다는 듯 싱글거리며 말했습니다.

“정계장, 한 번 받으나 열 번 받으나 같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 글썄요. 모두 모여서 함께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상철이도 같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선배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상철이의 마음은 모두가 알았으니 됐고, 이 치킨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는 걸로 하자.”

상철이는 몇 번을 사양하다가 치킨 값을 받고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습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니다.

“선배님!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맞아, 도자기 장인은 망가진 도자기는 두드리지 않아. 겉이 그럴듯한 도자기를 두드리보며 시험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반듯한 사람도 늘 시험을 받아. 그럴 땐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이런 시험에 드는구나.’ 하고 생각해.”

“네, 앞으로 공직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상담테이블에 다가가서 아이스바를 집어 들었습니다.

“더워서 아이스바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아이스바를 가져오셨네요. 이거 값을 지불할 테니 같이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은 그냥 드시고 다음번에 사오면 그때는 돈을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림에 다음은 없습니다.”

아이스바를 모두에게 나눠주고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보호관찰대상자는 하죽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너무들 하시네. 공무원들 많이 변했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하하하!”

“한 명이 무언가 사들고 관공서에 다녀오면 그걸 본 몇몇 사람 역시 무언가 사들고 가게 되지요. 청탁은 독감처럼 전염됩니다. 그러니 청림에는 ‘다음에’같은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법률이나 어떤 지침으로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납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다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내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지 자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은 정책결정 과정의 마지막에 독특한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빨간 얼굴 테스트’라 불리는 불문율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아내와 자식에게 얼굴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분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존슨 앤드 존슨을 미국식 윤리경영의 표상 또는 윤리경영의 원조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청렴도가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잊고 지내곤 합니다. 청렴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회적인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몇 십 년에 걸쳐 이루어온 명예도 단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렴에 다음은 없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



최우수상 • 일반부문



양심 방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양심 방역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에 실패한 나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여러 번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취업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취업이 금방 될 줄로만 알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나는 한 달 두 달 취업이 늦어지자 점점 마음이 초조해 지고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일단 취업만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나의 전공이나 적성, 회사의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만큼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처음의 각오와는 달리, 거의 매일같이 하는 야근과 이어지는 술자리로 나의 건강과 생활은 황폐해 지고 있었다. 결국 회사를 다닌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표를 내고 다시 구직자의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어 국내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자영업자들도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는 등 그야말로 국내 체감 경기는 사상 최악의 상황



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렇듯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기업체에 입사하겠다는 나의 희망과 각오는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이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즈음, 아는 지인으로부터 ○○보건소 방역 관련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의 받았고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였던 나는 얼떨결에 방역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공무원 공부 는 계속 하면서 주경야독하겠다는 각오로 나름의 위안을 삼았다.

○○보건소 방역 업무는 방역 관련 장비가 갖추어진 차량 1대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계약직 공무원 한 분 그리고 그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어깨에 개인용 방역장비를 메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아르바이트요원 6명 정도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보건소 방역은 연기가 나는 연막소독이 아닌 살충 원액에 물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분무 소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효과는 분무소독 방식이 더 좋다고 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분의 설명에 의하면 연막 소독은 소독 성분이 공기 중에 금방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 분무소독은 살충액을 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수구나 물이 고인 곳에 직접 분무하기 때문에 모기 유충을 박멸하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방역차량에 설치된 방역기구는 주로 방역 구역이 넓은 도심 하천 주변이나 수풀이 우거진 야산 등지에서 방역 작업을 담당하였고, 그럴 때면 우리 팀원 모두는 기다랗게 호스를 펼쳐 중간에 줄이 엉키거나 꼬이지 않게 단단히 줄을 잡고 있어야 했다. 차량에 설치된 기계에서 분무약이 분사될 때에는 호스의 압력이 높아져, 자칫 잘못하여 줄을 놓치기라도 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다.

차량 방역과는 달리 분무기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하는 개인방역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주택가 하수구나 물이 고인 웅덩이 위주로 실시하였는데 새벽(7월~9월), 오전, 오후 각각 2시간 정도 방역작업을 하고 작업이 빨리 끝나면 개인별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개인방역은 무거운 살충액을 어깨에 메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작은 하수구 구멍 하나하나에 일일이 소독액을 분사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 되었다.

또한 소독액을 분사하면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한다면,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분무통으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위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야 했다.



문제는 이 개인방역이 쉽게 유혹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차량방역은 팀원 모두가 함께 작업을 하는 반면, 개인 방역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방역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작업환경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맡은 구역만 책임지고 방역을 하는 것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령을 피우거나 유혹의 손길에 넘어갈 수 있었다.

우리팀원 중에도 대충 빨리 일을 끝내고 자유 시간을 길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개인방역은 방역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각자 맡은 위치로 흩어져 방역을 하는데 살충액을 다 사용하고 전 팀원이 모두 모이면 대기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다음 방역 시간까지 개인시간을 갖는 구조였다.

이러니 어느 누구 하나라도 늦게 방역을 마치면 팀원 전체가 그 한 명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가끔 눈총을 받는 팀원도 있었다.

그 눈총을 받는 팀원 중에 한명이 바로 나였다.

나는 내가 맡은 구역은 꼼꼼하게 방역을 하려고 했고 살충액이 완전히 다 떨어질 때 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살충액을 분사했는데, 일부 팀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은 대충 살충액을 뿌리고 남은 살충액을 아무도 안볼 때 하수구 구멍으로 버리는 일도 있었다.

“어이! 유주사, 너는 너무 꼼꼼한 게 탈이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하고 남은 액은 아무도 안볼 때 구멍으로 비우고 빨리 모이라, 알겠나?”

팀원 중 나이가 많은 형이 답답하다는 듯이 나에게 한마디 하였다.

“아니, 꼭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한테 할당된 구역을 책임지고 작업할 뿐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살충액이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이것도 엄연히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자 그 형은 다시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빠하는 얼굴빛은 숨겨지지 않았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자기 집에 소독 좀 해 달라면서 우리가 개인방역을 하는 중에 슬그머니 다가와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찢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가정집을 개조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자주 이러한 부탁



을 하시는데 가정집에는 사사로이 방역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팀원 중에도 가정집에 소독을 해주고 담뱃값 좀 받았으면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날은 정원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소독을 해주고 값비싼 음식을 대접 받기도 했다면서 다음에 또 소독을 해주기로 약속 했다는 등 규정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솔직히 나도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내 양심상 그럴 수는 없어서 정중하게 거절하면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한번 안 들어주느냐’면서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욕을 들으면서 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자괴감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켰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해 11월말 모든 방역 일정이 끝나고 우리 팀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헤어졌고 나는 다시 공부에만 매진하기로 하였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주경야독하면서 시험공부와 방역 일을 병행하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것으로 내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려고 했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방역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듬해 봄쯤으로 기억한다.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작년에 방역차량을 운전하던 계약직 공무원분이셨다.

올해도 방역 아르바이트 요원을 뽑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면, 내가 일을 하겠다고 동의만 한다면 ○○보건소 행정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팀원들은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 하고 책임감도 없어 보였는데 나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주어서 항상 기억에 남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는 나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다.

비록 아르바이트로 몇 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에 대해 그 분께 정말 고마웠고 나 자신에게도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주경야독대신 도서관에서 수험서적과 씨름하며 열심히 공부한 결과 지방 공기업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때의 소중한다면 소중한 경험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준 것 같다.



다른 사람도 다 시간만 때우고 대충 일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임한다면 언젠가는 그 노력의 대가는 빛을 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 질 수 있는 행동은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이 아닐까? ♣





우수상 • 공직부문



1등 한 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1등 한 날



“저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해양수산부 임용을 위해 최종면접 당시 면접관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자기소개 첫 구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고기 잡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어부십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본인의 배를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남의 배의 선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다에 일하러 나가시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가까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마치고 오신 아버지의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과 한여름의 논바닥처럼 갈라진 손바닥을 보면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셨음에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바다에 나가 바지락이며 미역이나 청각 같은 해조류를 채취해 시장에 나가 팔아 우리 오남매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흔한 담배조차 피우지 않으시고 술 한 잔 입에 안대시며, 먹고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저축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작은 중고 어선 한 척을 구입하셨습니다. 일생일대의 꿈이었던 한 선박의 선장이 되신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선원을 부릴 수가 없어 어머니와 같이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오남매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드릴 선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큰누님의 제안으로 흰 배를 새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페인트는 걷어내고 위쪽은 새하얀 페인트로, 물이 잠기는 아래쪽은 노란색으로 정성껏 색칠을 하였고 배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며 해초류는 박박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남매가 한나절동안 고생해서 단장이 끝난 배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럴싸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매우 흡족해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 처음으로 외식을 시켜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탕수육이란 걸 먹어봤습니다. 그때 처음 먹어 봤던 탕수육은 그 땀별에서의 수고를 말끔히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중고 어선이었지만 그 배는 그 어떤 배보다 크고 멋진 우리 집 보물 1호였습니다. 못하시는 막걸리도 한 사발 들이키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아버지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 가슴이 찡해 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지상에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듯이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에 그물을 드리워놓으면, 그것을 보지 못한 물고기가 지나가다 그물에 낚히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를 어획(漁獲)하는 그물을 ‘자망’이라고 하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자망어업을 하셨습니다.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저희 집 가훈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저희 오남매 학교 갈 채비부터 집안일까지 하시면서 바다 일까지 하셨으니 그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로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새벽녘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셔서 저녁 즈음에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한 두 척씩 어판장 앞 부두에 배들이 모여 그날 잡은 고기를 경매하기 좋게 배 앞에 나열해 두었습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은 경매사 아저씨가 그날 잡은 고기의 무게를 목청껏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진호 100kg요! 태광호 90kg요! 동백호 105kg요!”

경매사아저씨의 호명을 듣다보면 마치 학창시절 성적표 받을 때의 떨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배를 호명하는 순간,



“동진호 45kg요!”

이럴 수가. 믿기지 않았습시다. 145kg를 잘못 들었나 싶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님보다 늦게 일어나시고 일찍 들어오시는 옆집 김 선장님보다 고기를 적게 잡은 건지, 심지어 아랫집 이 선장님은 우리집 보다 배도 작은데……. 뭔가 못마땅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저도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찻! 그 말은 순 엉터리야!”

어린 마음에 ‘아빠가 고기 잡는 실력이 모자라서서 다른 선장님들보다 적게 잡으시나?’하고 철없는 생각도 했었습시다.

“아이고 우리집도 삼중망 썼으면 200kg, 300kg로 잡았겠네.”

그 이유는 다음날 어머니의 푸념 섞인 낯두리를 우연히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시다. 알고 보니 옆집 김 선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네에서는 ‘삼중망’이라는 불법어구(不法漁具)를 사용하여 어획을 하는 일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퍼져있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였습시다. 이 삼중망이라는 어구(漁具)를 사용했을 경우 일반 합법적인 어구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시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셔도, 어구의 성능이 월등히 차이가 나기에 저희 아버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께서 고기를 많이 못 잡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께 여쭙봤습니다.

“아빠! 우리도 그 삼중망,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 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겠지. 나도 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 영민이가 사고 싶어 하는 자전거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싶구나. 근데 영민아. 그 삼중망이란 걸 쓰면 바다에 있는 어린 고기들까지 다 잡아 버려서 나중에는 잡을 고기가 없어진단다.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일이지만 나중을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란다.”

그제야 남들 다 쓰는 삼중망을 아버지께서는 절대 쓰지 않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고 나서는 실력이 없어 고기를 못 잡는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부모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잡은



고기를 어판장에 팔러 가셨습니다. 오랜만의 만선에 싱글벙글 웃으시며 어판장으로 향했던 그날, 이상하게도 어판장에 나온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김 선장님도 아랫집 이 선장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아버님도 의아하셨던지

“다들 어디 갔습니까?”

물으셨고 경매사님께서는

“아, 모르셨어요? 이번에 불법 어구 일제 단속 나왔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날 우리 동네에는 불법 어구 일제단속이 나왔고 단속반원들은 배에 실려 있던 불법어구와 어획한 생선들을 모두 압수해갔으며 선장님들은 큰 벌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어구를 쓰신 아버지만 그 단속을 피해갈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어판장에서 1등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고기를 팔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른 선장님들을 걱정하시던 아버지를 보며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원리원칙대로만 사는 아버지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사람들은 편법과 꼼수로 그 혼한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고 땡땡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청렴하게 살아왔던 아버지께 세상은 1등이라는 값진 선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부당한 이득은 결국손해와 같다.’는 제 일생일대의 크나큰 교훈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청렴 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 아버지께 새삼 안부전화를 드리며

“아버지 ‘청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라고 여쭙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청렴? 그거 착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짧고 통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착하게 사는 게 청렴한 거 맞아요. 잠깐 눈앞에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 볼 줄 알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게 살아오신 아버지 인생이야말로 청렴한 인생입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수고를 도와드릴 요량으로 가끔씩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를 따라 나가 뱃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배를 조종하는 법과 배를 어디로 몰아야 되는지, 어디가면 고기가 많이 있는지 등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GPS나 레이더 등 첨단장비가 많이 있어 배를 조종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 당시 그런 장비가 없던 아버지께서는 등대를 보며 방향을 가늠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건 저 등대만 보고 가면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단다.”

안개가 끼면 비가 오면 아버지께서는 방향을 가늠하실 때 항상 등대를 먼저 찾으셨고, 그때마다 등대는 밝게 빛나주었습니다.

그때의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바다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를 관리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임용이 되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버지가 가고자하는 길을 알려주던 등대를 관리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대를 볼 때면 그날 어판장에서 1등을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자기 합리화로 눈앞에 이득을 취하기보단,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소신 있게 살아 오셨던 아버지의 인생 말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순간이나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혹이 찾아올 때면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그곳 그 자리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



무수상 • 공직부문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



[신사임당의 유혹]

금요일 저녁이면 나는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익숙한 풍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창동역 앞 작은 포장마차로 들어서면 조금은 낯았지만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원탁과 함께,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13년지기 친구 한 놈이 나를 반긴다. 조금 허름하지만 한없이 아늑한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소주 한 잔에 인생의 씁쓸함을 털어 넘기고 새로운 희망의 한 잔을 따르고 있었다.

2017년 4월의 한 금요일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만 다르지 않았으리라. 맞은편에 앉은 친구 H는 그날따라 유독 말수가 적었다. 실수를 연발하는 직장 동료, 결혼과 혼수 문제, 뉴스 기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등……. 만날 때마다 잠시도 입을 가만 두지 않던 놈이 연거푸 술잔만 들이키는 것이 의아했다. 무슨 일이 생겼냐는 물음에도 쉽게 대꾸를 하지 않던 H는 네 번째로 주문한 소주병을 매만지더니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옥아, 너 예전에 도시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전기 공급이 되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 문서나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었지?”

“그렇지. 일단 우리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줘야 그쪽에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다시 한참 말을 아끼던 H는 수없이 들이킨 소주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내 눈을 또렷이 보며 말을 꺼냈다.

“그 자료들 따로 정리해서 내가 좀 받아보면 안되겠냐?”

기나긴 친분도 곤란한 요구 하나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기에 난감한 부탁은 절대 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우리였다. H가 말한 문서와 자료들, 모두 실제로 내가 회사 업무를 하며 빈번하게 접하는 것들이었다. 적기적소에 전기를 공급해야하는 임무를 가진 회사 특성상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입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떤 지역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었다.

H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었다. 증권회사를 다니는 H는 얼마 전 부서 내에서 실적이 후순위로 밀린 것에 대한 압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투자 정보가 필요했을 것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작부문

이다. 하지만 H의 부탁은 곧, 나에게 내부분서를 빼오라는 의미이다. 분명 H도 그 의미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냈을 것이고.

말을 잊지 못하는 나를 보며 친구는 못 들은 이야기로 생각하라고 소주잔을 털어 넘겼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침묵의 시간이 얼마간 지난 뒤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들어온 나는 복잡한 생각을 떨치려 바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친구가 얼마나 힘든 마음에 그런 부탁을 했을까 싶어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사실 들키지 않고 조금 도와주는 셈 친다면 문제없는 것 아닐까. 그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겠지…….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휴대전화를 찾으려 가방을 열었다. 그런데 가방에 넣어둔 기억이 없던 봉투 하나가 보였다. 그 안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 여러 장이 보였다. 5만 원권 10장이었다.

도움이요 뭐고 머릿속이 새하얗진 나는 다급히 H에게 전화를 걸어 이 돈의 정체를 물었다. 그런데 H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만약 앞으로도 자료를 줄 생각이 있다면 그때마다 대가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전화를 끊은 나는 봉투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건물생심이라 했던가.



세상 누구나 가진 공통의 고민거리, 바로 돈일 것이다. 사실 나도 지금의 월급으로는 많이 빠듯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한 나는 남들에 비해 시작부터가 마이너스였고, 2015년 갑작스레 찾아온 아버지의 뇌경색 치료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상당했던 탓에 나를 위한 저축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내 손에 들린 신사임당의 얼굴, 그것은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 날 이후 H는 연락이 없었고, 나는 며칠째 퇴근 후 침대에서 봉투만 만작거렸다.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일. 도와주고 싶지만, 분명 문제가 되는 일. 하염없이 머리를 싸매다 옆으로 돌아누운 나는, 문득 방 한 구석에 자리한 낡은 장식장에 시선이 갔다. 그곳에는 색이 바랜 곰돌이 인형 한 쌍이 있었다.

[성민아, ‘촌지’보다는 떳떳함으로 이겨내야 한단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소위 ‘촌지’라 불리는, 불법 찬조금이 당연시되던 때였다. 사교육을 받으며 높은 성적을 얻는 ‘있는 집 자식들’은 부모들이 매학기 학교에 찢어 넣는 뒷돈으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녔다. 나름 상위의 성적을 유지했던 내가 우등생 명단에 항상 들지 못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나와 같은 반에 있던 우등생 중에는 ‘있는 집 자식’이 한 명 있었다. 경쟁심, 아니 열등감이었을 것이다. 그 아이만큼은 제치고 싶었고, 어렸던 내 생각으로는 ‘촌지’만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을 다녀오겠다고 한 나는, 무슨 용기였던지 동네 건물 지하에 있던 부업장문을 무작정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처럼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다가와 나를 내쫓으려 했으나, 너무나도 완강했던 나의 태도에 결국 소일거리를 하나 받아낼 수 있었다. 인형 눈알 한 쌍 붙이기에 40원, 하루 할당량 200개.

그날 이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출근하듯 부업장으로 들어갔다. 물론 집에는 도서관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돈을 떼일까 불안했던 어린 마음에 그날의 대기는 바로 현금으로 받았고, 일이 끝난 뒤에는 본드 냄새가 너무 심해 한참동안 거리를 서성이다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눈알과 싸우기를 한 달……. 5,000개째의 눈알을 붙인 나는 봉투에 20만 원을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학급 공지에 대한 회신문을 가져오라는 날이 있어, 봉투를 함께 넣은 회신문을 교무실에 조용히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일주일, 이주일 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상함과 답답함이 기억에서 잊혀져갈 무렵,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려는 나를 선생님이 붙잡았다.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잔다. 쭈뼛쭈뼛 따라 나선 나는 동네 고깃집에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종업원의 안내에 구석진 방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계셨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나를 자리에 앉힌 선생님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잡은 내 손은 아직 본드로 인한 상처들이 낫지 않은 채 갈라지고 벗겨진 상태였다. 내 손을 가만히 내려 보시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성민아, 난 네가 최근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다 봤어. 그렇게 남아서 질문도 많이 하고 도서관도 바로 가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른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이상하더라. 미리 알았을 때 그만 두게 하지 못했던 건 미안하다. 그런데 선생님은 성민이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려주고 싶었어.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돈 절대 안 받아. 내 학생들을 돈 몇 푼으로 다르게 보고 싶지 않거든. 정말 중요한건 내 학생들이 떳떳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란다. 성민이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념으로 오늘은 선생님이 맛있는 저녁 시줄게. 그리고 성민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내일 선생님이랑 서점가서 같이 좋은 참고서나 몇 개 골라보자.”

그날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껍질이 심하게 벗겨져 연필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손,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던 죄책감이 서러움이 되어 한 번에 터졌지 않았나 싶다. 선생님은 정말 다음날 서울에서 가장 큰 서점에 나를 데리고 가주셨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잡았던 덕분일까. 나는 성적이 점점 올라갔고, 교내에서 인정받는 장학생 중 한 명으로 당당히 졸업할 수 있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공직부문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

여전히 내 방 장식장에 있는 인형 한 쌍은 부업 마지막 날 사장님께 얻어 온 기념품이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탓에 그 인형이 내게 주었던 소중한 깨달음도 인형의 색처럼 바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인형을 깨끗이 세탁한 나는 바로 H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같은 반이었던 바로 그 ‘있는 집 자식’에게. 늘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는 재회했고, 나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이미 나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H는 조용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H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한때는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공유하며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이기에. 그래서 H도 며칠 전 봉투를 준 날 이후로 굉장히 후회했었고, 오히려 내게 미안함이 너무 커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다. H는 진지한 사과의 말과 함께,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떳떳하게 살면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 보이겠다고 결의에 찬 눈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끈끈한 우정, 새로운 다짐을 위한 잔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날 술은 내가 샀다. 맡겨놓은 돈에 대한 이 자라고 생각하라고.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 집에 들어선 나는 다시 내 방에 있는, 지금은 깨끗해진 곰돌이 인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었던 존재, 잠시 잊었던 큰 깨달음을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를. 그리고 재차 다



짐했다. 항상 바르고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저 깨끗한 곰돌이 인
형처럼. ♫





무수상 • 일반부문



전하지 못한 신도증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전하지 못한 신도증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산이 많다. 그 아름다운 산을 끼고 유명 사찰이 자리하기에 예로부터 ‘명산대찰’이라 불려왔다. 사람들은 그런 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절을 찾아 기도하며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예전에는 이런 명산대찰에 들어가자면 입장료가 필요했는데 2007년이 넘어서자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었다. 대신 사찰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 일행은 절에 들어가지 않고 등산만 할 건데 무엇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는 거요?”

국립공원매표소 앞에서는 입장객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매표소 직원과 하루에 한두 번씩은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그렇다고 절은 구



경하지 않겠다는 입장객의 말을 믿고 입장권 없이 그냥 들여보내는 것도 규
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매표소에 서서 입장권을 요구하면
내가 신도로 있는 절에 가는데 돈을 내느냐고 따진다. 또 등산객들은 절에
는 들어가지 않을 건데 돈을 내라면 어찌느냐고 따지고 든다. 그러니 어떤
때는 미안함에 손이 오그라들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지만 임무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
는 말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국립공원매표소에 근무한
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후 사찰을
포함하고 있는 국립공원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00원
에서 많게는 4000까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찰의 신도라고 우기며 표를 끊지 않고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길
은 조계종에서 발행하는 불교 신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모
양새로 보아 등산을 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사찰의 신도라고 우긴다. 그래도
매표소에서는 불교 신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등산객
이라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으니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입장객이라도 모두가 절에 구경을 간다고 예상해 입
장료를 받거나 또는 불교 신도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서로가 곤혹스럽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국립공원 아랫동네에 사시는 어머니와 형수님께서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들고 매표소로 다가오셨다. 그런 두 분께 내가 말을 걸었다.

“절에 가시려고요?”

“그래, 오늘이 초하루라서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 불공 좀 드리려고 한다.”

어머니는 형수님을 데리고 한 달에 보름도 넘게 절에 가서서 불공을 드린다. 그러니 두 분은 내가 지키는 매표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나 형수님께 입장권을 끊으라거나 사찰의 신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입장을 시킨다. 두 분이 사찰의 신도는 분명하지만 사찰의 신도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 어머니와 형수가 무료로 입장할 때마다 남들이 볼까 봐 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국립공원의 매표소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장권을 구입하라고 말한다. 또는 불교 신도증을 보여주어야 입장을 시킨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입장을 시키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 볼 때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의 부정으로 인



해 휘청거린 정부가 여럿 있었다. 또는 자식과 형제가 저지른 부정으로 대통령 사과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때도 있었다. 가장 가까운 예로 40년 지기가 저지른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으로 국민이 촛불까지 들고 목청을 돋우지 않았던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핏대를 세우며 부정을 성토했다. 그리고 지도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들의 가족을 원망했었다. 그랬었는데 나는 그런 사실도 잊고 내 가족인 어머니와 형수를 국립공원에 부정으로 입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니 내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다가 이내 생각을 바꾼다.

‘이까짓 입장권 몇 푼이나 된다고……. 어머니와 형수는 우리 가족이고, 사찰의 신도가 분명하지 않은가? 또 내가 문지기인데 입장시키지 못할 까닭이 있나?’

나는 애써 몇 푼 안 되는 돈이라고 자위했으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양심이 거리킨다.

‘누가 내 이런 부정한 행동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해 나는 얼마 전부터 부모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니, 차라리 조계종에서 사찰 신도증을 신청해 발부받아 가지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다니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떳떳하고 저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면 어머니는 역정부터 내셨다.

“아니, 아들이 절간의 매표소에서 일하는데 엄마 하나 입장을 못 시킨다고?”

정말 못 말리는 어머니시다. 아들이 국립공원매표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寄貨)로 공짜로 입장을 하겠다는 알박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신도증을 발급하는데 돈이 아까워 그러시는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머니나 형수가 분명히 사찰의 신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신도증을 갖추지 않았으니 무단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나는 어머니와 형수를 국립공원의 사찰에 입장시킬 때마다 마음의 갈등을 겪으며 고민을 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부정은 부정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부정과 양심의 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때가 여러 번이다.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불교신자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받고, 불교 신도들한테도 신도증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킨다. 그런데 부모라 하여, 형수라 하여, 돈도 받지 않고 신도증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국립공원의 사찰에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입장시키고 있으니 이는 부정이고 특혜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 건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온 국민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내 세대에 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라는 작은 돈이라 하여 눈을 질끈 감고 있으니 언제부터인가 이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얼마동안을 고민하던 나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적은 돈으로 청렴과 결백이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다.

“형수님, 조카한테 어머니 사진과 형수님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사진은 어디에 쓰시게요?”

“두 분께 신도증을 발부해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겪은 갈등의 이야기를 대충 해드렸다. 그러자 형수는 빙그레 웃으며 반문했다.

“나도 그동안 삼촌을 생각해서 신도증을 발급받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가 역정만 들었어요. 아들이 매표소에서 일하는데 왜 헛되이 돈을 쓰냐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사실 신도증을 발급받자면 1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거기에다 매년 1만원을 내고 갱신을 해야 한다. 그러니 90살에 가까운 어머니께는 이것이 아까운 돈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신도증을 발급받지 않고 입장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와 형수의 신도증을 발급받으려면 매년 2만원이 필요하다.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왜 낭비하느냐고 역정을 내실 게 분명했다. 예전에도 그런 일 때문에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믿는 부처님이 계신 내 절에 가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우기시다가 뜻대로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이 있다.

“국립공원매표소에 근무하는 내 아들 덕 좀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시비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목이 턱 막히며 누가 들을까 무섭기까지 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인데, 그깟 몇 천 원짜리 공짜로 입장을 시켜주는 것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이라는 것은 애초 아주 적은 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정과 부패는 바늘도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후 나는 서울의 조계종으로 돈과 사진을 보내 어머니와 형수님의 불교 신도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발급받은 신도증을 두 분께 전해주지 못하고 매표소 책상 속에 넣어두고만 있다. 분명 어머니께 신도증을 건네주면 역정을 내실 것이 뻔하다. 그러면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증이 아닌 장롱 신도증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신도증을 갱신해 매표소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 누가 가족이라 하여 공짜로 입장을 시킨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신도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제는 매표소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요구하고 신도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떳떳하기만 하다.

“오늘부터는 백중기도를 드려야 하니 며칠은 절에 오르내릴 게다.”

어머니와 형수는 오늘도 매표소를 지나가시면서 나한테 기도 사실을 알렸다. 이제는 두 분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셔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책상 속에는 두 분의 신도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우리 가족의 일인데 설마 괜찮겠지. 이렇듯 아주 조그마한 일에 눈을 감고 부정과 결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면 점점 일이 커져 개인은 물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는 개미구멍으로 저수지의 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와 같으니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조그맣게 뚫어진 내 마음의 개미구멍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을 막기 위해 조계종으로부터 불교 신도증을 발부받고 매년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서럽기만 하다.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나는 올해 퇴직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님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린다는 뜻으로 어머니께 사찰 불교증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



무수상 • 일반부문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청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청렴!



대학 3학년인 아들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정직하고 소신이 있는 아이 이기는 하지만, 당선되기가 쉬운 것도 아닐 테고, 혹시라도 선거 후 득표율이 저조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도전해볼 수 없는 일이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뜻이 있으면 한 번 도전해보라고 했다.

11월 첫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유세전에 들어갔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갈 때 즈음, 아들이 유세하는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앞으로 향했다.

해도 뜨기 전 어두운 교문 앞에는, 후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조금 있으니, 같은 색깔 점퍼를 입은 팀끼리 일렬로 늘어서서 공약들이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서는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고, 그 모습에는 국회의원 선거유세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네 명의 후보 중, 기호 2번인 아들도 2번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빛바랜 낡은 주홍색 점퍼를 입은 일행들과 함께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학우 한 명,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자신이 내건 공약을 꼭 지키겠노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다.

아들이 내건 공약은, '등록금 동결, 장학제도 늘리기, 학생식당 운영업체 교체 및 음식 질 높이기'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 식당은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다보니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은 교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비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다 조리하시는 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나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누가 학생회장이 되든 그 부분만은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의 유세하는 모습도 봤으니, 출근을 하려고 버스정류소로 내려가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있는데 셔틀버스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셔틀버스 앞으로 달려가더니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 주는 것이었다. 흔히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홍보용 전단지나 할인 쿠폰 같은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주 걸어오는 여학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1번 후보 어머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 도서상품권을 전교생에게 다 나눠 주실 생각인지 가방에 한가득 들어있더라. 인자 막판이라 애가 타시는 겁니다.”

“이런 거 막 나눠주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선배, 동아리 모임마다 참석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 도 엄청 마이 썼다카더라. 우리 과 봉사활동 갔을 때도 거기까지 찾아와가 저녁 사주고 갔다 아이가. 4번 선배도 만만치 않게 작업하고 다닌다카던데……. 1번, 4번, 두 선배가 경쟁하는 거 같제? 과연 누가 당선될지 역수로 궁금해지네.”

“그런다고 되겠나? 어쨌든, 그리 공 들였는데 안 되면 우짜노?”

“선배언니들 말로는 1번 선배가 80%는 가능성 있다카더라.”

여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소리를 들으니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지난여름, 아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총학생회장 출마에 뜻을 가진 친구들은 방학 동안 여기 저기 물 밑 작업 하러 다니면서 표 굳히기 한다고 정신없는데, 우리 아들만 ‘청림한 선거’를 할 거라며, 그 들이 그러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물밑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동아리 모임도 찾아다니고,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밥도 사고 술도 사 주며 총학생회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니 지지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말도 한마디 못 꺼내보고 혼자 고민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짊하고 미안해서 그날 저녁, 남편 몰래 아들에게 돈 백 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우선 이 돈으로 다른 친구들처럼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면 형편 되는 대로 조금 더 마련하여 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펄쩍 뛰는 것이었다.

“어머니! 돈을 써 가면서까지 총 학생회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돈 이 회장이 되는 겁니다.

술 먹고, 밥 얻어먹어야 표를 찍어주겠다고, 저는 그런 표, 단 한 표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셔야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봉투를 내밀던 손이 부끄럽고 무안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그러는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서운하긴 했지만, 아들 말이 옳기는 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못하니 그게 문제 아닌가! 노파심에 내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렇다고 돈 한 푼 안들이고 어떻게 선거를 할 거고? 물밑 작업인가 그거 말고도, 단체복도 사야하고 현수막이니 포스터니 돈 많이 든다가 던데.”

“단체복은 작년에 선배님들 입었던 거 물려 입기로 했고 포스터도 직접 만들면 되고, 학교 창고에 찾아보니까 작년에 선배님들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쓰면 됩니다. 꼭 필요한 비용들은 회원들 모두 N 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고, 최대한 아껴서 최소의 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희들 뜻은 알겠는데, 세상이 그렇다 아이가? 얻어먹고 싫다는 사람 없다. 니그 학교 학생들이라고 별 수 있겠나? 남들이 하는 거, 흉내 내는 시늉이라도 해봐야 후회가 없을 거 아이가?”

“남들이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정직하게 해야 후배들도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들이, 너희들처럼 해서 과연 몇 표나 나오겠니?’

하지만, 아들의 뜻이 워낙 강경하다보니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른 후보들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걸 그랬다고 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대학 총 학생회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데, 청림을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에게 부정, 부패부터 가르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땀뿜어지는 법이요. 그 자리는 수 천 명의 학생들을 대표할 중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자리지, 엄마 치마폭에 힘써여 학급을 좌지우지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반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었다.

그날 이후, 총선이 끝나는 날까지,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크게 도움을 준 것도 없고 해준 것이 없으니, 마음은 접었지만 득표율이 라도 조금 많이 나와서 아들이 자신감만이라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 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투표 당일! 오후 여덟시 경이 되면 당선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열시가 다 되어가도 아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혼자서 낙담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아들이 들어오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주어야할지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 벨이 울렸다. 기다리던 아들 번호인데도 선뜻 받기가 망설여져서, 여러 번 벨이 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과반수이상 높은 득표율로 어머니 아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게 다 부모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까? 확정됐나? 우리아들 장하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노?”

“어머니가 걱정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우들, 밥 한 끼, 술 한 잔에 흔들리는 형편없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라도 학생들을 부정부패에 익숙한 속물로 취급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했던, 가장 유력하다던 후보가 득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었다. 생각지 못했던 이외의 결과라서 그런지 정말 기뻐다. 아들이 당선되어서 기쁘기도 하였지만,



젊은 학생들도 ‘청렴함’을 원하고 있었고, ‘청렴함’을 알아봐주었다는 점이 더없이 감사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학생식당 운영자인데 아드님이 총 학생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러왔다면서 봉투를 한 장 내미는 것이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는지 황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분이 내미는 봉투가 더 황당했다.

봉투를 정중히 사양했더니, 그는 ‘선거운동 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라며 관례적인 일이고 아무 뜻 없이 축하금으로 주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아달라고 하였다. 또, 정신없이 바빠 질 텐데 ‘승용차’ 한 대 구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봉투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듯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몹시 불쾌해졌다.

‘당신 같은 어른들이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돌려보냈다. 만약, 우리 아들도 선거운동 하면서 일부 후보들처럼 많은 돈을 썼더라면, 어찌면 나도, 그 분이 내미는 봉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정부패하지 않고도 정직과 청렴함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	-----	-----	----

\ 일반부문

잘 해 내는 것을 지켜보았으니 그런 돈은 전혀 필요치가 않았다.

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은 학생식당 업체교체였다.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겨울방학 기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학기에 지장이 없으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했다.

아들의 선거전을 치루면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점도 많았지만,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반성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당장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부정부패 보다는, 조금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정직과 청렴함을 원하고 있다는 것,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다. 하여, 아들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 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